



▲7월 24일 개최된 '새도약의 밤' 행사



'새도약의 밤' 개최

25대 집행부 상견례·후원위원회 출범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회장 권영걸)는 지난 7월 24일 서울 강남구 수담한정식에서 '새도약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제25대 집행부 임원 상견례와 후원위원회 발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권영걸 회장을 비롯해 유인수 명예회장, 정옥란·손문자 고문, 신임 부회장 및 이사, 신성식(53회화) 동문, 류은



자(환경대학원SGS) 등문과 신용석(비즈니스경영외과) 원장이 참석했다. 김정아 사무차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권영걸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신임 박혜경 부회장과 이정연 이사에게 대표로 선임장을 수여하고, 전임 이민주 상임부회장과 민수정 사무국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어 동창회 운영 현황 보고, 후원위원회 출범, 만찬 및 참석자 소감 순으로 이어졌다. 후원위원회 회장에는 정옥란(62응미) 고문이 추대됐으며, 부회장에는 강인선(73회화) 추진위원장이 선임됐다. 동창회는 이번 후원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회원 중심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동문회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은 2019년 권영걸 회장 취임 이후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수익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다. 앞으로는 동창회의 주체인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을 기반으로 운영 체계를 강화해 보다 안정적으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후원회 간담회 개최

본회는 지난 8월 7일 리버사이드호텔 따똥에서 지난 7월 후원위원회 설치에 따른 운영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본회 권영걸 회장을 비롯해 후원위원회 정옥란 회장과 강인선 부회장, 손희옥·김유숙 부회장, 황현수·채혜선·김홍규 상임부회장, 김정아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본회 재정 운영보고에 이어 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9월 이전 운영규정 마련 및 임원을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모임은 후원회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강인선 부회장이 자리를 마련했다.

미술실기강좌 가을학기 개강

본회가 주최하고 (사)에스아트플랫폼이 주관하며 서울대학교총동창회가 후원하는 '2026 S-미술아카데미 가을학기'가 오는 9월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15주 과정으로 11개 강좌(아래 시간표 참조)가 진행된다. 강좌는 회화와 드로잉, 디지털아트, 전통회화 등 실기 중심의 전문 프로그램이다. S-미술아카데미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출신 강사진이 수준 높은 미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장 큰 강점은 1:1 맞춤 지도로 개인의 표현 역량과 창작 감각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술 입문자부터 심화 창작을 원하는 미술전공자까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수강 가능하다.

동문모임 소식

한국화회 60주년전 개최

한국화회(회장 송근영)가 지난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인사동 백악미술관 전관에서 '한국화회 60주년-경계, 미래의 실험실'전을 열었다. 1967년 창립된 한국화회는 한국화의 전통을 계승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시대 변화에 발맞춰 한국화의 정체성과 가능성을 끊임없이 확장해 온 대표적인 작가 단체로, 산업화와 세계화, 그리고 동시대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한국화가 독자적인 예술 언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60주년 기념전에는 한영옥, 정정자, 홍정희, 조은경, 김춘옥, 손희옥 동문 등 총 59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한국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회장동정

저속노화아카데미 프로그램

본회 회장 권영걸 세종연구원장은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과 공동으로 「2026년 저속노화아카데미」를 오는 8월 26일과 9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권원장은 “건강한 노화는 매일의 식사와 운동, 약물 복용 등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교육이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모집

세종연구원은 지난 8월 5일부터 '2026년 하반기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학습자를 모집한다. 권영걸 원장은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은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관심 있는 분야를 배우며 새로운 경험과 성장을 이루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행복아카데미 2기 진행

세종연구원은 2026년 신혼(예비)부부 행복아카데미 2기를 지난 7월 11일 대평동 SM메디컬센터에서 진행했다. 권영걸 원장은 “결혼생활에서는 서로의 차이를 없애기보다 이해하고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예비·신혼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잘 듣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을 수행해 왔다. 이번 60주년 기념전에는 한영옥, 정정자, 홍정희, 조은경, 김춘옥, 손희옥 동문 등 총 59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다양한 세대의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전시는 한국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S-미술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9길 16 백악미술관 2층

문의 02-877-8065

• 평일 10~17시

2026 가을학기 미술강좌 시간표 9.4~12.24

전 강좌 초·중·고급 과정

월	화	수	목	금
기초소묘드로잉 오전 10:00 ~ 13:00 콘테와 오일파스텔을 이용한 기초드로잉 김호준	프리페인팅 자유재료 자유소재 조명식	유화 초·중급 안성규	현대 수묵화 풍경·인물·정물·문인화 창작 조래원	태블릿 PC 디지털 페인팅 기초부터 작품제작까지 이영훈
자유 크로키 오후 14:00 ~ 17:00 누드 강사 없음	자유창작 자유재료 자유소재 유인수	아크릴화 구상에서 추상까지 정일영	사군자 여백과 묵향의 힐링 변영혜	수채화 초·중·고급 박혜령

ONE DAY CLASS

10.17(토) 10:00-17:00

프레스코
석회벽화 템페라
선우향

접수기간
2026.8.6(목)~8.24(월)

접수 방법
접수 : 010-8605-8065 문자
입금 : 301-0252-4434-51 농협 권영걸(서울대미술동창회)

수강정원
강좌별 15명
• 신청순 접수 / 복수신청 가능
• 10명 미만 폐강

수강료
수강료 45만원 (15회)
자유크로키 24만원(12회)
*모델료 별도
프레스코 15만원 (1회)
*재료비 포함

강좌/강사/한불 안내 홈페이지 참조
(snuarta.or.kr S-미술아카데미)

주최 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 주관 (사)에스아트플랫폼 후원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비납부 안내

회비구분			회비
연회비	회원		5만원
	임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 2026.7.16.-8.15

- 부 회 장 조온영(74회화) 30만원
- 회 원 조경란(93서양) 5만원

- 후 원 금
- 신성식(54회화) 100만원 (매년 100만원 종신약정)
 - 손희옥(68회화) 100만원
 - 황현수(74조소) 100만원
 - 채혜선(82응미) 100만원
 - 김유숙(87서양) 100만원
 - 류은자(환경대학원SGS14기) 20만원
- 후원광고
- 이민주(78회화) 20만원

지금 납부해주세요~!!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연회비 5만원을 내시면

- 동창회가 돌아갑니다
- 여러분의 소식이 알려집니다
- 경조사시 축하근조기가 갑니다
- 전시 및 행사 참여가 많아집니다
- 작품판매 기회가 늘어납니다
- 동문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집니다
- 작품구입시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 재학생 후배들에게 일자리가 생깁니다

후원금을 내시면

- 여러분의 이름으로
- 학생회가 행사지원을 받습니다
- 야작하는 재학생 후배들이 야식을 받습니다
- 재학생 후배들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 모교에 필요한 사향이 지원됩니다
- S-갤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 공익사업이 활발해집니다

회원님들이 내주시는 회비는 동창회의 원동력입니다.
[연회비] 회원 5만원 / 이사 10만원 / 부회장 30만원
[평생회비] 50만원(만65세 이상 30만원)
[후원금] 100만원 이상 후원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소선(63조소) 동문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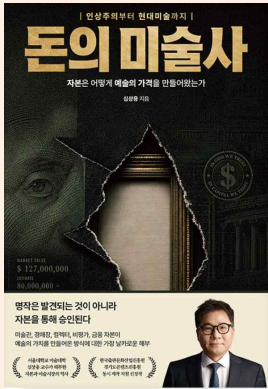
본회 고문 및 (사)에스아트 플랫폼 감사 김소선 동문이 지난 7월 18일 별세했다. 고인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한 뒤 지난 60여 년간 백자에 우리의 민화를 그리는 독특한 작품으로 일본, 미국, 영국 등 해외 초대전을 개최하며 한국문화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는데 기여했다. 갤러리내일, 고성군립미술관, 국회 아트갤러리, 가나아트센터, 국립태권도박물관 등에서 초대전을 가졌다. 또한 국전, 한국미술협회전, 한국전업작가전, 아름다운서울그림전, 한국의 사계전, 예담회전, 한울회전, 63동문전, SNU빌라다르 등 다수의 그룹전과 각종 아트페어에 참가했다. 국회도서관을 비롯해 여러 박물관, 대사관, 호텔 등에 작품이 소장됐으며, 가천대 사회교육원 위촉교수를 역임했다.

소식을 보내주세요~

본회는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을 온라인소식지 '서울대미대 동창회 E-NEWS'를 매월 발간해 동문 및 관련단체 등 45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또한 SNS계정(네이버밴드 · 인스타그램/서울대학교미술대학동창회)을 운영해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동문들의 전시 및 행사 · 인사 · 수상 · 개업 · 결혼 · 부고 등 동정을 문자(010-5235-1946)나 메일(snuarta@naver.com)로 보내주시면 소식지와 SNS계정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네이버밴드에는 회원께서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축하기 · 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립니다. 축하·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연회비(평생회비) 납부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돈의 미술사 출간기념 행사

일사: 20026년 8월 30일 오후2시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강연: 심상용(81회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
서울대학교미술관 제8대 관장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후원안내

개인전 및 단체전, 기업 홍보를 하시면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4500명) 발송, SNS(인스타그램, 밴드)업로드
- 광고마감 : 매월 말일
- 발 행 일 : 매월 15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6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서울대소식



글로벌사회공헌단 발대식

서울대 하계 글로벌 사회공헌단이 지난 7월 8일 관악캠퍼스 우정관에서 발대식을 갖고 7월 말부터 네팔,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에서 하계 공헌 활동을 시작했다. 글로벌 SNU공헌단은 7월 19일 네팔을 시작으로 8월 6일까지 각 나라에 파견돼 현지 수요에 맞게 적정기술 전수 및 교육·문화·의료 공헌 활동을 한다. 네팔 SNU공헌단은 카트만두 교육 소외 아동을 대상으로 예체능 및 보건교육을 제공하고 학부모를 위한 보건 및 위생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장기 공헌 모델인 인도네시아 SNU공헌단 with 삼익약기는 롬복 지역 아동 대상으로 예체능 교육을 제공하고 미진학·미취업 청년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또 현지 대학 학생들과 함께 롬복 지역에 대한 탐구 및 문화교류 활동을 진행한다. 우즈베키스탄 SNU공헌단 with 영원무역은 사마르칸트 지역 유치원 아동을 위한 교육 나눔 활동과 고려인 대상 교육과 문화나눔 활동을 편다. 이준식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며, 겸손한 자세로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배우게 될 배려, 책임감, 공동체 의식은 앞으로의 삶을 오래 비추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홍림 총장은 “글로벌 사회공헌단은 서울대 간판 활동으로 항상 자긍심을 갖고 있다. 여기 오신 분들과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 서울대 간판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미래 사회를 살아가며 더 큰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글로벌 SNU공헌단’은 서울대 글로벌 사회공헌단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개발도상국에 학생봉사단을 파견하여 국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파견 활동은 연중 2회 진행되며 학생봉사단은 국가별로 교육나눔, 의료·보건나눔, 적정기술 설계, 문화교류 등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현지 대학 학생 및 기관과 협력하여 실행한다.

서울대 29대 총장후보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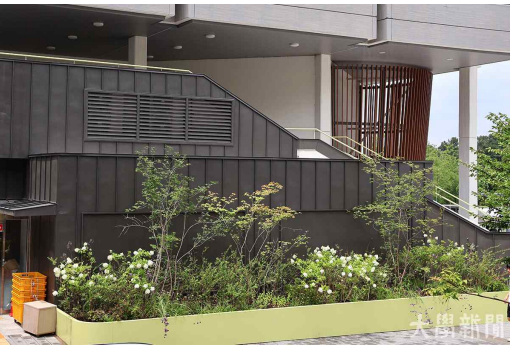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가 지난달 7월 31일 ‘제29대 서울대 총장 모집 공고’를 게재하며 차기 총장 선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지원 접수 마감은 오는 8월 20일 오후 6시까지다. 총추위는 후보자들과의 부적절한 로비를 차단하고자 행동 강령도 함께 발표했다. 또한 총추위는 ‘총장 예비 후보자’ 4인을 추리는 데 차등 점수제를 도입한다.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 4명(총장후보초빙위원회 추천 후보가 포함될 경우 5명)을 고르고, 각각 1~4점을 차등 부여해, 오는 9월 9일 이 점수를 합산해 최고 득점자 4인을 예비 후보자로 선정한다. 선발된 예비 후보자들은 오는 9월 17일과 22일 각각 연건캠퍼스와 관악캠퍼스에서 공개 소견 발표회를 연다. 이후 교원·직원·학생으로 구성된 정책 평가단이 오는 10월 7일 최종 후보 3인을 선발한다. 총추위가 후보 3명을 서울대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는 이 중 1명을 투표로 선출한다. 선출된 최종 후보는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으로 임명한다.

2026 상반기 교개협

2026학년도 상반기 교육환경개선협의회(교개협)가 지난 7월 1일 진행됐다. 교개협은 총학생회가 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 요구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는 자리로 매 학기 열린다. 이번 교개협은 2026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중집)가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정규 의제

로 기초 수·과학 교양과목 수강기준 조정, 선이수 기초 교양과목 확충, 강의계획서 구체화, 다전공 추가합격제가 논의됐다. 다전공 진입 과정의 제도적 장벽을 완화하고 학생들의 수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주를 이뤘다.

학생회관 게시판 ‘자유의 벽’ 원상복구하기로



SNU 커먼즈 사업 과정에서 대형 화단을 조성하며 철거됐던 학생회관 앞 게시판이 원상복구된다. 해당 게시판은 학내 대표 공론장으로 여겨지는 ‘자유의 벽’ 가운데 하나다. 게시판이 철거된 이후 2026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는 학생회관 교보문고 외부에 새 게시판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본부는 해당 장소에 유리창이 있어 설치가 어렵다고 봐 원상복구를 제안했고, 학생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본부는 “재설치하는 게시판의 자력을 강화하고 내구성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구 이후 연석회의 중앙집행위원회가 과한 도배나 게시 기간을 넘긴 부착물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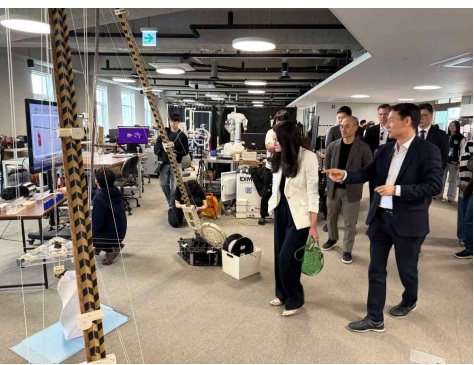
교수산악회 파미르 유힌봉 올라



로 구성됐으며, 지난 6월 27일 10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이날 정상에는 올해 83세인 김병동 식물생산과학부 명예교수 등 대원 7명이 올랐다. 유힌봉(Yukhin Peak)은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파미르 고원의 트랜스-알라이(Trans-Alay) 산맥, 키르기스스탄 파미르 알라이 지역에 위치한 만년설 봉우리이다.

로보틱스연구소 국가연구소사업 선정

서울대 로보틱스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공동추진하는 2026년 국가연구소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연구소는 앞으로 10년간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로봇의 몸과 지능을 함께 설계하는 차세대 피지컬 AI 원천기술 개발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연구소사업(NRL 2.0)은 세계와 경쟁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대학 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소로 육성하는 범정부 차원의 연구지원 사업이다. 선정된 연구소는 최대 10년간 연 100억원 수준의 연구비와 연구인프라를 정부와 대학으로부터 지원받는다.



로봇연구동 건립계획

서울대가 관악캠퍼스에 로보틱스 연구를 전담할 대형 연구 시설을 짓는다.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조인트랩(NVAITC)과 정부 국가연구소(NRL) 사업에 선정된 로보틱스연구소가 이곳에 들어올 예정이다. 학내에 흩어진 로봇 연구 역량을 한데 모아 산학협력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서울대는 올 하반기 중 로보틱스 연구동 건립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연구동은 현재 로보틱스연구소가 입주해 있는 해동첨단공학관 뒤편 주차장 부지 일부에 들어선다. 내년 착공해 완공까지 3~4년가량 걸릴 전망이다. 지하 포함 5~7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서울대가 별도 건물을 짓는 것은 학내 로봇 연구가 중요해진 데다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로보틱스연구소는 해동첨단공학관 한 층의 일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연구소에 참여하는 교수진만 100명 안팎에 이른다.

총동창회소식



이준식 회장, 미주동창회 평의원회 참석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이준식 회장은 지난 6월 26일~28일 미국 미네소타주 블루밍턴의 캠브리아호텔에서 열린 서울대미주동창회 평의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서 이준식(72기계) 회장과 송우엽(79체육교육)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유홍림(80정치) 서울대 총장은 영상 축사를 보냈다. 미주동창회에서는 황효숙(65가정) 회장, 박상근(75법학) 차기 회장, 박현아(88공업화학) 사무총장, 임동근(14대학원) 총무국장, 손창수(86경영) 재무국장을 비롯해 동문 등 고문단과 주요 임원, 각 지부 평의원들 90여 명이 참석했다. 미주동창회 평의원회는 미주동창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각 지부 평의원들이 지난 1년간의 사업과 재무 현황을 보고받고 새 회기 주요 사업과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다. 미주동창회는 해외 서울대 동창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조직으로, 동문 친목을 넘어 장학, 창업, 지식 교류, 시니어 돌봄, 모교 협력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올해 회의는 '지속 가능한 미주동창회'를 중심 의제로 삼아 세대와 지역을 잇는 동문 네트워크의 미래를 논의했다.



인왕산둘레길 등산대회

총동창회는 지난 6월 18일 인왕산둘레길에서 등산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호(59교육) 동문부터 이일화(00교육) 동문까지 30여 명의 동문이 함께했다. 이날의 등반 코스는 경복궁역을 출발해 사직단과 단군성전, 황학정, 수성동계곡, 사직동으로 이어지는 인왕산둘레길으로,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산행 뒤에는 통인시장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눴다. 참가자들은 사직단과 단군성전을 차례로 둘러본 뒤 황학정에 자리한 국궁전시관을 찾아 성봉주 대장의 설명을 들으며 활의 역사와 국궁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했다. 이어 활터에서 실제로 활을 쏘는 이들의 모습도 지켜본 후 인왕산둘레길을 함께 걸었으며 하산길에 김찬근(69철학) 동문의 통소연주는 이날 산행의 백미였다. 다음 총동창회 등산트레킹은 오는 11월 5일 남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달수동문 장학금 1억원 기부

재단법인 관악회에 지난 6월 한 달 동안 47명의 동문이 장학금 3206만원을 보내왔다. 올해 관악회 장학금 누계액은 6월 말 현재 7억 9781만원이다. 6월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달수(65지리교육) 동문은 지난

7월 2일 관악회에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 6월에는 유종석(78기계)·박준희(SPARC20기) 동문이 각각 1000만원을 기부했다. 박준희 동문은 이번이 첫 기부다. 이기용(68독어교육) 동문은 125만원을 보냈고, 권호진(토목74)·김동호(62불문)·박성수(73농공)·변종오(77요업)·손경희(HPM39기)·유재한(73경제)·주상용(93사법) 동문은 각각 100만원을 보내왔다. 우희명(37기 GLP) 동문은 50만원, 이용철(67농화학)·이창건(49전기) 동문은 각각 30만원을 기부했다. 김성민(93의학)·박주미(81치의학)·이유림(16전기정보)·이윤종(87의학) 동문은 각각 20만원을, 고병철(61국어교육) 동문 등 30여 명도 5000원부터 10만원까지 정성을 보냈다. 기부자 동문 대부분은 3억원부터 60만원까지 약정을 하고 매월 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세대공감 시네마 콘서트 열어

총동창회는 강남문화재단(이사장 김종섭)과 지난 7월 8일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세대공감 시네마 콘서트'를 공동 주관했다. 이날 동문과 시민 150여 명이 고전영화 '러브스토리'를 감상했다. 김종섭 총동창회 명예회장이 제안한 이번 행사는 명화를 매개로 세대 간 소통과 가족 간 공감을 넓히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관악경제인회, 스타트업혁신 조찬포럼 가저

총동창회 (사)관악경제인회는 지난 7월 16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스타트업혁신 조찬 포럼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관악경제인학회 창립 회원인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서병륜 관악경제인학회 회장 등 80여명과 함께 참석해 동문 스타업체 격려와 함께 첨단산업동향 파악, 투자사업연계에 대한 포럼을 진행했다. 박준희 회장은 포럼에서 AI 기반 검색 최적화(AEO/GEO) 스타업 애니모르프, 초개인화 데이터 기반 디지털지갑 스타업 원셀프월드, mRNA 기반 치료용 암 백신 스타트업 이노백스 바이오팜 대표들의 사업 계획과 투자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단법인 관악경제인회는 2022년 8월 26일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산하 임의단체(직능단체)로 설립된 이후 2025년 6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단법인 관악경제인회로 설립 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30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으로 공시됐다. 동문중 경제·금융·사회·언론·교육·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조직)의 대표나 임원, 간부급 인사, 교수,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인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 역량이 높은 인사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6년 6월 현재 회원수는 130여명이다.



김창열 화가의 집 개관 김창열(48회화)

세계적인 물방울 화가 김창열(1929-2021) 동문의 자택이자 작업실이 지난 5월 28일 '종로구립 김창열 화가의 집'으로 개관돼 공개됐다. 1969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간 김창열 동문은 1976년 이후 한국에서의 활동이 늘

어나자 고국에서 머무를 공간과 작업실을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마련했다. 1988년 준공된 평창동 작업실은 건축물로 2022년 '서울시 우수건축 자산 제13호'로 등록되었다. 김동문은 생전에 작업실을 공개할 계획을 세웠고 종로구가 그 뜻을 이어받아 유족과 협약하여 '김창열 화가의 집'을 개관하게 됐다. 지상 두 개 층은 거주 공간, 지하 두 개 층은 작업실로 사용됐던 건물은 지상에 두 개의 기획 전시실과 방문객들이 쉬는 장소를 조성하고 지하에는 작가의 작업실을 재현하여 개방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29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열리는 개관전 <김창열, 물방울의 흔적>은 평창동작업실에서 이루어진 종이를 매개로 한 작품을 시기별로 조망한다. 회화, 판화, 드로잉 등 총 24점과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물방울', '회귀'의 밑그림도 전시된다. 미술관은 유족이 기증한 작품 390점을 포함한 소장자료 2600여 점을 순차적으로 교체 전시할 예정이다.

'이제 내가 똠다' 개최 김선학(83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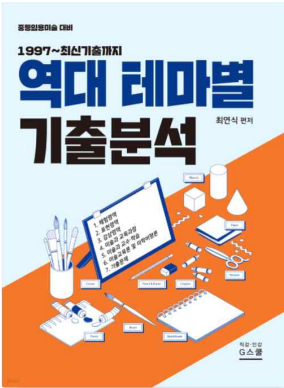
우현문갤러리 대표 김선학 동문이 '대한민국 젊은작가 응원 프로젝트 2026-이제 내가 똠다'를 지난 7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인천 제물포구 우현문갤러리에서 개최했다. 미래 한국미술을 이끌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이번 기획전에는 전국 14개 미술대학 교수와 제자 등 51명이 참여해 회화와 조각 등 평면·입체 작품을 선보이는 '사제동행(師弟同行)'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성작가와 신진작가, 미술전공 학생이 함께해 세대 간 예술적



교류와 청년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는 자리다. 김동문은 우현문갤러리를 통해 지난 2020년부터 청년작가 발굴과 지원을 위한 '대한민국 젊은 작가 응원 프로젝트'를 이어오며, 작가들이 초대전과 아트페어 등에 진출하는 등 신진작가 등용문 역할을 해왔다.

'임용미술 역대 테마별 기출분석' 발간 최연식(88서양)

최연식 동문이 지난 7월 2일 '2027 최연식 임용미술 역대 테마별 기출분석'을 출간했다. 이 책은 체험, 표현, 감상, 교육과정, 교수·학습, 미술교육론, 미학비평론, 기출문제 등으로 구성된 618쪽 분량이며, 2026학년도 기출문제와 2009 ~ 2013학년도 객관식 기출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저자인 최연식 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공평고시학원 임용미술 이론전담 교수를 비롯해 희고고시학원 임용미술 이론 전담 교수, 강남 하안나



무 아트센터 디자인 수석 주임을 역임했다. 또한 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 대입 발상표현 강좌를 촬영하기도 했으며, 현재는 최연식 임용전문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전공미술의 핵', '최선생의 핵심임용 미술', '최선생의 전공미술 역대 기출핵심 분석', '전공 미술 논술의 핵', '전공미술 객관식 문제풀이', '임용미술 동양미술사', '임용미술 서양미술사', '한국불교사고려' 등이 있다.

'작가와 함께 도자기 만들기' 발간 정연택(74서양)

장연택 동문이 지난 8월 8일 우리나라 전업 도예가 10명의 작업 과정을 한 권에 담은 실전 도예 교재 『작가와 함께 도자기 만들기』를 발간했다. 전작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가 도예 입문자를 위한 기초 교재였다면, 이 책은 백자, 청자, 분청, 옹기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완성까지 단계별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공개하여, 독자가 실제 작업실에서 배우는 것처럼 제작 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



했다. 또한 각 작가가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제작 기법과 작업 노하우를 담아 도자기 제작의 원리와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모교 및 동대학원에서 도예를 전공한 정동문은 명지전문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학교기업 'MJ 아트 세라믹'을 운영하며 조선백자의 현대적 실용화를 위한 제품개발에 매진하였다. 또한 '1260' 브랜드를 통해 현장 중심의 공예교육을 강화했다.

디자인과에 3억 기부 김권봉(07디자인)

모트모트 대표 김권봉 동문이 모교 디자인과에 3억원을 기부했다. 지난 7월 2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관에서 열린 감사패 증정식에서 김동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디자인은 자유와 창의가 숨쉬는 교육·연구 환경에서 시작되고 더욱 성장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기부금은 '미래 디자이너를 위한 창의환경 조성기금'으로 조성되어, 창의적 실험과 협업이 가능한 공간, 교육·연구 인프라, 결과 공유 전시시스템, 첨단기자



재, 창의 프로그램 등 학생들이 자유로운 여건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창의적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쓰인다. 한편 모트모트는 2016년 동문들과 창업한 문구 전문 브랜드로, 시간관리 솔루션 '텐미닛 플래너'와 '태스크 매니저', 온라인 스터디그룹 로켓단, 울클 앱 등 학습·성장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에 선정 황문정(08조소)

황문정 동문이 인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인천아트플랫폼의 '2026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에 선정됐다. 인천 출신인 황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영국 글래스고예술학교 석사를 거쳐 서울대 조소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7년 인천아트플랫폼 레지던시 입주를 계기로 다시 인천과 인연을 맺은 그는 이후 인천에 작업실을 두고 활동했으며, 서울로 거처를 옮긴 뒤에도 '영일상회'를 비롯해 인천시청역 예술정거장 프로젝트, 가좌동 마을



미술 프로젝트 등 지난 10년간 인천에서 참여한 활동만 20여 건에 이른다.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는 인천 연고의 중견 및 청년예술인을 격년으로 선정해 개인전을 개최하는 사업이다. 황동문은 인천아트플랫폼 창작공간 스튜디오에 입주해 창작 활동을 이어가며 내년 8월 개인전을 개최하게 된다.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유영국(1948-50 교원)

전 모교 교수 유영국(1916-2002) 탄생 110주년을 기념하여 서울시립미술관은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를 지난 5월 19일부터 오는 10월 25일까지 개최한다. 미공개작을 포함한 회화, 부조, 사진, 드로잉 작품 및 아카이브 170여 점을 통해 그의 예술을 총체적으로 조망한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립미술관의 '한국 근대 거장전' 시리즈 첫 프로젝트로, 1935년 도쿄 문화학원에서 시작된 추상미술에 대한 실험부터 생애 후반 심상 추



상에 이르기까지 60여 년의 유영국 화업을 조명한다. 그에게 중요했던 1964년을 기점으로 시간을 역행했다가, 순행하는 독특한 시간여행을 통해 점, 선, 면과 색이라는 회화의 기본 요소로 산을 추상화했던 유영국의 예술세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파리의 화가 김창열 김창열(48회화)

김창열 동문의 프랑스 파리 시절에 초점을 맞춘 특별기획전 '파리의 화가 김창열'이 지난 6월 30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김창열미술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김창열 동문이 낯선 도시에서 자신만의 예술 언어를 찾아 세계적 명성에 이르기까지의 궤적을 작품과 사진 자료,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입체적으로 풀어낸다. 김



동문이 국제적 작가로 발돋움한 무대는 파리였지만, 파리에서 보낸 시기는 덜 알려졌다. 미술관은 파리와 드라기냥에 촬영팀을 파견해 미공개됐던 김동문 작업실 등 현장을 기록하고, 부인과 차남, 파리에서 활동한 한인 화가, 갤러리스트 알민 레흐의 이야기도 담았다.

화가 김종학 김종학(56회화)

김종학 동문의 특별전 '화가 김종학'이 지난 7월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강릉시립미술관 솔울에서 열린다. 미공개 초기 종이 작업 300여 점과 대표 연작, 아카이브 및 작업실 재현 등 이번 회고전은 초대형 작품과 덩굴 연작을 통해 그가 평생 탐구해 온 생명의 에너지와 회화적 본질을 조망한다. 오는 9월 베를린전은 한국 현대회화의 독자적 성취를 국제



적 맥락 속에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에게 설악은 삶과 예술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킨 장소이자 자연과 존재의 본질을 새롭게 인식하게 한 정신적 원향(原鄉)이었다. 1979년 설악산으로의 이주는 위기의 끝에서 이루어진 근원적 귀환이었다.

화이부동 김아영(70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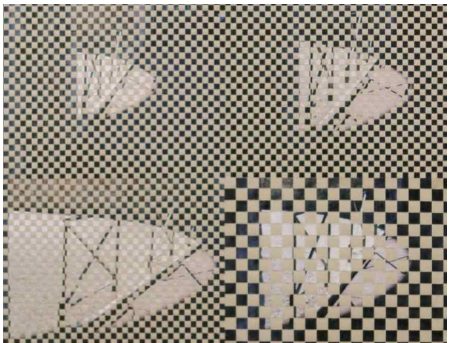
김아영 동문의 개인전 '화이부동: 和而不同'이 지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종로구 갤러리 그림손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강원갤러리 선정작가 전시이다. 춘천에서 활동하는 김동문은 바깥에서 대상을 보며 작업을 시작한다. '눈이 녹는 중에 또 쌓이는' 광경, 흐드러지게 피어난 진달래, 얹혀진 나무 등을 담은 그의 그림에서 마음이 편해지는 자연스러움이 느껴지는 이유다.



김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회화와 졸업 후 그로리치화랑, 서울갤러리, 춘천문예회관, 갤러리현대, 동산방화랑, 아트사이드, 세종갤러리, 동경Central회화관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정재규 초대전 정재규(70회화)

사진과 회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독창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해 온 정재규 동문의 초대전 '사진-데생'이 오는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광화문에 위치한 갤러리 내일에서 열린다. 기계적 이미지와 아날로그적 수작업이 공존하는 독창적인 미학을 완성하는 정동문의 작품은 윗따기기법과 먹을 머금은 붓의 빠른 운필로 사진 속에 잠재된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시각



경험을 만들어내는 등 인간의 시지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시간과 공간의 층위를 탐구하며, 관람자에게 현실 너머의 감각을 경험하게 한다. 이번 작업은 사진과 회화, 기록과 창조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그의 예술세계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모습경험 이용덕(77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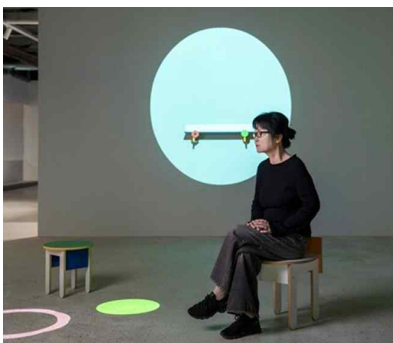
이용덕의 개인전 '모습경험'이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 아트파크에서 열려, 이동문이 40여 년간 발전시켜 온 독창적인 조각 개념인 '역상조각'을 선보였다. 기존 조각이 대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면, 역상조각은 음각의 공간을 관람자가 양각의 형상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해 작품을 완성하게 한다. 작가는 오목하게 파인 공간을 통해 형상을 창조하며, 관람자의 시선과 움직임에 따라 작품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지



각적 착시를 만들어낸다. 또한 정교한 인체 비례 계산을 바탕으로 일상의 순간을 포착해 과거의 시간을 현재로 불러오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 그는 "역상조각은 형태 그 자체를 조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형태가 생겨나는 조건을 조각하는 것이다"고 말한다. 이번 전시에서 관람객은 단순한 감상자를 넘어 자신의 지각을 통해 작품을 완성하는 참여자가 됐다.

이동 중 홍승혜(78회화)

홍승혜 동문의 개인전 '이동 중'(On the Move)이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14일까지 부산 수영구 국제갤러리 부산에서 열렸다. 홍동문이 탐구해 온 '이동성' 개념을 기반으로 한 평면, 영상, 조각 등 초기작부터 근작까지 24점을 선보여 작업 변모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는 '움직임'이라는 단일 키워드에서 출발하지만, 그 양상은 단순하지 않다.



작가는 이를 세 가지 층위로 나눴다.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임을 내포한 평면, 실제로 움직이는 영상, 그리고 관객이 이동시키며 개입할 수 있는 입체 작업. 이 세 갈래의 흐름은 전시 공간을 하나의 유기적 구조로 엮었다. 홍동문은 1982년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파리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했다.

드로잉을 통한 회화의 복원 박동진(82회화)

박동진 동문의 개인전 '드로잉을 통한 회화의 복원'이 지난 8월 4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국립춘천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서 열린다. 회화 및 드로잉 160여 점이 출품된 이번 전시는 디지털 이미지와 개념미술, 미디어 아트가 중심이 된 현대 시각예술 환경 속에서 '회화의 존재 의미'를 다시 묻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는 작가의 철학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우주



-이어달리기', '욕망의 꽃-100개의 드로잉', '달을 느끼다' 등 세 개의 연작으로 구성됐다. 박동문은 모교 졸업 후 1980년대 현실을 반영하며 시대를 투영한 흔들 목마 작업으로 널리 알려졌다, 1989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뉴욕, 이스탄불, 상해, 서울, 춘천 등 국내외 많은 전시에 참여했으며, 현재 춘천교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채워지는 시간 송인옥(82회화)

송인옥 동문의 초대전 '채워지는 시간'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종로구 미앤갤러리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는 회화작업과 더불어 도예가 성석진과 협업한 도자작업을 함께 선보여, 반복과 축적의 시간을 통해 완성되는 창작의 의미를 조명했다. 전시 제목인 '채워지는 시간'은 작가가 창작 과정에서 경험하는 결핍과 충만의 순환을 담고 있다. 한편 송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졸업 후 '시간의 길', '보이는 것', '시간의 숲', '보이지 않는 것', '바라보기', 'Green Rain' 등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했다. 또한 예술의전당, 인사아트센터, 서울대미술관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LOOK 고완석(84동양)

고완석 동문의 초대전 'LOOK'이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2일까지 갤러리 모나리자 산촌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는 인간의 인식과 존재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회화와 조형언어로 풀어낸 신작 50여 점을 선보였다. 고동문은 우리가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경험과 기억, 가치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프리즘을 통해 세계를 해석하



고 있음을 작품을 통해 말한다. 고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단국대 조형대학원에서 미술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대한민국미술대전, 공무원미술대전, 남농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국내외에서 47회의 개인전과 40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공의 공명-Towards the truth 이민주(76회화)

이민주 동문의 제64회 개인전 '공의 공명-Towards the truth'가 오는 9월 2일부터 19일까지 압구정동 갤러리Pal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수묵화 대작을 비롯해 구아슈, 아크릴릭, 부온프레스코 벽화기법을 활용한 작품 등 30여 점을 선보인다. 신작과 구작을 함께 전시해 작가의 예술 세계와 작업의 변화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동문은 2001년부터 '선선선(線禪仙)' 그리고 '선(鮮)'을 주제로 작업을 이어오며 '진(眞, The Truth)'을 향한 일관된 예술적 탐구를 보여준다. "나의 공명필선은 정신이자 파장이며, 세상과 우주를 연결시키는 매개체이다. 삼라만상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파장을 서로 교류하며 공명한다. 나의 공명필선은 너와 나,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공기와 자연속의 무생물까지 이어준다. 어둠속을 뚫고 지나가는 강력한 빛처럼"이라고 말하며, 보이지 않는 공명



의 세계를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이동문은 1989년 갤러리현대 개인전을 비롯해 독일 크레펠트그라아펜 호르스트성갤러리, 마드리드국립대 미술대학 갤러리, 예술의전당,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공평아트센터, 인도아트뮤지엄, 안상철미술관, 겸재정선미술관 및 버몬트, 뉴욕, 워싱턴, 베를린, 포슈하임, 상하이 등 국내외에서 60여 회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광주비엔날레,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 아시아 아트 비엔날레(방글라데시) 등 주요 국제전에 초청받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프랑스 그랑팔레에서 열린 Le Salon du Dessin et de la Peinture à l'Eau에서 테일러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The moonlight in Seoul
2026.(91×116.8), Mixed media on canvas



어둠을 뚫는 빛1.The GreenLight in the darkness,
2026(100×100), Mulberry paper on thread on canvas

공의 공명(空의 共鳴)Resonance of the Void -眞을 쫓아서 Towards the truth

이민주 초대전 2026.9.2. (수)-19(토)

Opening 9.2 (수) 5pm / 월-토 11am-6pm (일,월,공휴일 휴관)

Gallery PaL

서울 강남구 논현로 164길 21 우리빌딩
(압구정역 3번 출구 380m) 010-2217-3210

사유의 두축 한생곤(84서양)

한생곤 동문이 한희원 작가와 2인전 '사유의 두축'을 지난 4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과천 K&L뮤지엄에서 가졌다. 이번 전시에서는 두 작가의 전체 작품세계를 아우르는 주요작들을 연대별, 주제별로 엮어, 두 작가가 평생에 걸쳐 구축해 온 예술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장을 마련했다. 모교를 졸업한 뒤 작품활동을 이어가던 한생곤 동문은 2000년대 초 낡은 노란 버스를 사서 작업실로 고친 뒤 전국을 떠돌다 경남 사천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사연이 2003년 지상파 다큐멘터리 방송에 방영되며 그에게 '길 위의 화가'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의 그림에는 만물이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이 깔려 있다. 이번 전시에 나온 그의 작품에 돌가루와 조개껍데기, 깨진 기와, 빈 소주병 가루 등을 섞어 만든 물감이 사용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프리덤 250 초대작가 황혜선(88조소)

황혜선 동문이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공공외교 캠페인 '프리덤 250'의 초대작가로 선정되어 지난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성북동 공관차석 관저에서 전시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미국과 연관성을 지닌 한국 작가를 분기별로 조명하는 《표현의 자유, 프리덤 250 한·미 창조적 대화》 기획의 일환이다. 황동문은 평면 드로잉의 먹선에 명암과 입체감을 부여해 3차원 공간으로 확장하는 '드로잉 조각' 기법을 구축, 일상 속



사물과 풍경을 소재로 관람객과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을 해왔다. 또한 공공미술 분야에서도 일상 공간을 사색의 장소로 전환하는 시도를 지속해 왔다. 황동문은 모교 졸업 후 뉴욕대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 뉴욕 첫 개인전 이후 뉴욕 볼타쇼, 파리 L MD 갤러리 개인전과 스크 마이애미비치, 바젤 아트페어 등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 전시를 해왔다.

말이라 불리운 사나이 허진(81회화)

허진 동문의 정년퇴직기념전 '말이라 불리운 사나이'가 오는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광진구 세종뮤지엄갤러리 1·2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1991년부터 전남대 교수로 재직해온 허동문의 정년퇴직을 앞두고 마련됐다. 다만 특정 시기의 작품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는 회고전과는 성격이 다르다. 교수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작가로서의 활동은 이어가는 만큼,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전시이기도 하다. 특히 전시에는 최근작과 함께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유전' 연작이 소개된다. '묵시'에서 한 단계 확장된 '유전'은 과거와 역사가 현재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 역사를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자신을 새롭게 해석한 작업이다. 허동문은 "전시장이 두 개 층이어서 면적이 넓다. 전시작의 한 축은 최근작이고 한 축은 전에



공개하지 않은 '유전' 시리즈가 될 것이다 "며 "'묵시'에서 더 나아간 '유전'은 지금 우리에게 과거는 무엇이고, 역사는 현재에 어떤 그림자를 남기는지를 모색한 작품들이다. 한편 허동문은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금호미술관, 예술의전당, 노무라미술관, 월전미술관, 성곡미술관, 주러시아한국문화원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일보 청년작가 초대전, 수묵별미-한중근현대회화 등 국내외 주요 단체전에 참여했다. 또한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한국일보 청년작가 우수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등을 수상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광주시립미술관, 노무라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THE MAN NAMED HORSE

말이라 불리운 사나이

허진 Hur Jin

2026. 8. 19-30

Sejong Museum Gallery 1·2

오프닝 2026. 8. 21.(금) 5pm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209 세종대학교 대양시센터 | 10:00~17:00

아르마딜로 Armadillo 최병진(94서양)

불안과 강박의 감정을 '초상'으로 풀어온 화가 최병진 동문의 개인전 '아르마딜로'(Armadillo)가 지난 6월 10일부터 30일까지 종로구 송현동 이화익갤러리에서 열렸다. 최동문은 불안, 강박, 우울 등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단단한 등껍질을 만드는 현대인을 아르마딜로에 비유했다.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최동문은 작업과 생업을 병행하면서 강박 증상을 겪었고, 한동안 작품활동을 이어가지 못했다.

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초상' 시리즈를 시작했다. 초기 그의 '초상'은 투구를 연상시키는 기하학적 구조물이 얼굴을 빈틈없이 가리거나 겨우 숨길 구멍만 남겨두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강박 증상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초상' 작품도 달라지고 있다. 불안과 강박을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공원의 풍경: PARKSCAPE전 임상빈(95서양)

임상빈 동문의 '공원의 풍경: PARKSCAPE'가 지난 7월 9일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소울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임동문은 객관적인 사진과 감정·기억을 담은 회화 매체가 결합해 새로운 풍경을 선사한다. 센트럴 파크에서 느꼈던 감정과 기억, 사유를 바탕으로 기존 공원 풍경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한 화면은 동시대 풍경의 색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임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미국 예일대학원 회화·판화



석사과정, 콜롬비아대학원 미술교육 박사과정 등 다양한 곳에서 여러 분야를 전공한 그는 전통 회화에 뉴미디어를 결합한 작품으로 주목 받았다.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 등에서 다수의 단체전과 비엔날레, 아트페어 등에 참여했고 성신여대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제된 기억 Preserved Memory 홍성용(97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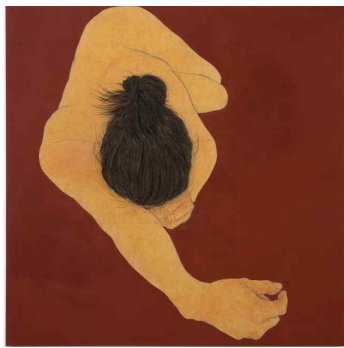
홍성용 동문의 개인전 '박제된 기억(Preserved Memory)'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금산갤러리에서 열렸다. 홍동문의 작업 중심에는 옷칠이 있다. 여러 차례 칠하고 건조하는 반복 과정은 기억이 형성되고 축적되는 시간과 맞닿아 있다. 그는 재료의 물성을 기억의 속성과 연결하며, 화면 자체를 시간이 머무는 장소로 만든다. 한편 홍동문은 모교 동양



화과 졸업후 동방대학원대에서 옷칠조형예술, 브라운대에서 Sequential Design & Illustration를 수학하고 서울대 미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옷칠, 퍼포먼스, 타투, VR, 디제잉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기억과 존재, 감각의 문제를 탐구해 왔다.

백승아 전시 백승아(99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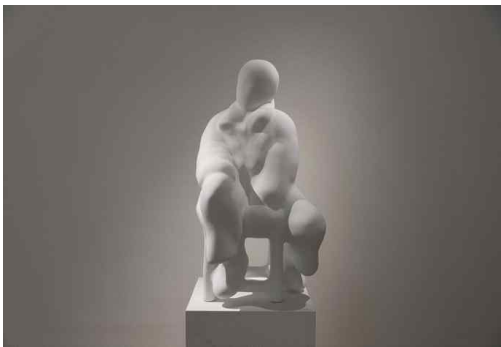
백승아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미국 마이애미 루벨뮤지엄에서 열린다. 장미셀 바스키아, 키스 해링 등 현대미술의 거장들을 발굴한 컬렉터 돈·메라 루벨 부부가 운영하는 이곳 미술관에서 백동문은 전통 동양화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현지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기고 있다. 그는 전통 초상화에서 인물의 피붓



결을 정교하게 표현할 때 쓰는 '육리문(肉理紋)' 기법을 현대적 누드화에 도입해, 드로잉 위에 먹과 전통 안료를 쌓아 올려 피부의 주름과 결, 셀룰라이트까지 세밀하게 묘사한다.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런던 골드스미스대에서 석사를 마친 백동문은 2016년 사치갤러리 전시를 통해 이름을 알렸다.

()-번져가는 형상들 신중훈(13조소)

신중훈 동문의 개인전 '()-번져가는 형상들'이 지난 7월 3일부터 오는 8월 23일까지 김종영미술관에서 열린다. 김종영미술관 창작지원작가전인 이번 전시에서 신동문은 인체조각을 반복적으로 확장하고 축소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이 추상적 형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선보인다. 그는 오랫동안 인체를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작업에 몰두했지만, 오히려 형태가 완성



되지 않거나 무너져가는 순간 더 강한 생동감이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시장에 놓인 조각들은 관객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신동문은 "조각이 일방적으로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관객과 서로 마주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사라진 것들의 기관, 버려진 감정들의 무대 김지아나(박08줄)

제24회 우민미술상을 수상한 김지아나 동문의 개인전 '사라진 것들의 기관, 버려진 감정들의 무대 The Theatre of Phantom Organ'이 지난 7월 22일부터 오는 9월 19일까지 청주 우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개인전은 김동문이 기능을 잃은 산업 장치와 버려진 감정을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며 주변으로 밀려난 존재들과 다시 관계를 맺는 방식



을 제안하는 전시다. 김동문은 미국 파슨스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제품디자인 도자전공 학사, 미국 몬트클레어 주립대 순수미술 석사를 거쳐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1997년부터 국내외에서 수많은 단체전과 개인전을 열었다.

TRANCE 하인용(19공예)

하인용 동문의 초대전 'TRANCE'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삼일로창고극장 내 삼일로 스페이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세라믹, 드로잉, 회화,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간 내면에 자리한 원초적 감각과 형상을 탐구해 온 하동문의 작업 세계를 소개했다. 하동문은 평면과 입체, 시간성과 비시간성의 경계를 넘나들며, 특정한 의미로 규정되기 어



려운 형상들을 물질 위에 드러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모교에서 도예와 서양화를 전공한 하동문은 개인전 'Celebration: The New Art'를 개최했으며, 신영미술상 2등과 베리타스미술상을 수상했다.

8월의 전시



이민주
공의 공명(鳴)의 공鳴(Resonance of the Void)
-빛을 통하여 Towards the truth-

2026.9.2-19
Tue-Sat 11:00-18:00 Mon/Fri, Off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PaL

이민주 초대전

이민주(76회화)
9.2-9.19
갤러리 PaL



정재규展
정재규(Changgi Jung) Solo Exhibition
PHOTO - DESSIN

2026.8.21 Fri - 9.2 Mon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갤러리 내일

정재규전

정재규(70회화)
8.21-9.2
갤러리 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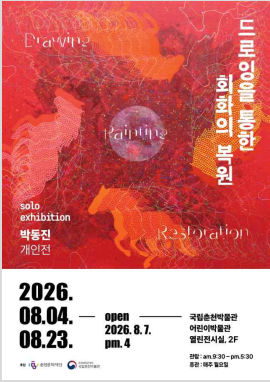
THE MAN NAMED HORSE
말이라 불리운 사나이
허진

2026.8.19-30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세종뮤지엄갤러리

말이라 불리운 사나이

허진
8.19-8.30
세종뮤지엄갤러리



드로잉을 통한 회화의 복원
박동진 개인전
박동진

2026.08.04. - 08.23.
open 2026.8.7. pm.4

국립춘천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별관2층 2F
관람: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관람: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드로잉을 통한 회화의 복원

박동진(82회화)
8.4-8.23
국립춘천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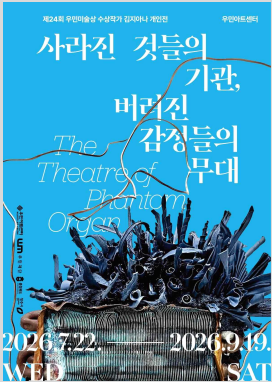


화가 김종학
김종학 개인전
김종학

2026.7.22and-8.23and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화가 김종학

김종학(56회화)
7.22-10.31
강릉시립미술관



사라진 것들의 기관, 버려진 감정들의 무대
The Theatre of Phantom Organ
김지아나(박08줄)

2026.7.22. - 2026.9.19. SAT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우민아트센터

사라진 것들의 기관, 버려진 감정들의 무대

김지아나(박08줄)
7.22-9.19
우민아트센터



박제된 기억
홍성용
홍성용

07.15 - 08.15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금산갤러리

박제된 기억

홍성용(97동양)
7.15-8.15
금산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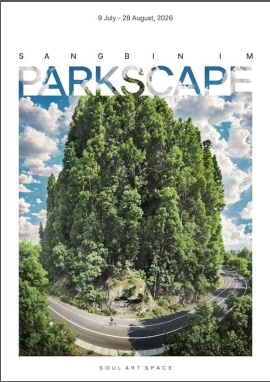
Art of Travel
Chae Hyeon, Novo, Lee Sangjo
이행의 이유

26.07.09-09.19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메타갤러리 라루나

Art of Travel

Novo, 이순조, 채혜선
7.9-9.19
메타갤러리 라루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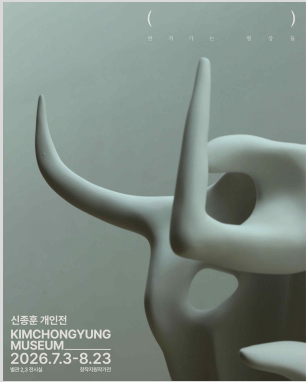
공원의 풍경
SANGBINIM
PARKSCAPE
임상빈

9 July - 28 August, 2026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울아트스페이스

공원의 풍경

임상빈(95서양)
7.9-8.28
소울아트스페이스



(-)번져가는 형상들
신종훈 개인전
KIMCHONGYUNG MUSEUM
2026.7.3-8.23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번져가는 형상들

신종훈(13조소)
7.3-8.23
김종영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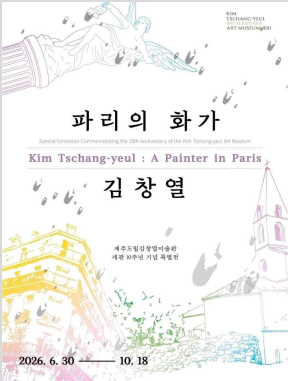
열린이름
정보원
정보원

2026.07.02 - 09.06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성북구립미술관

열린이름

정보원(65조소)
7.2-9.6
성북구립미술관



파리의 화가
Kim Tschang-yeul : A Painter in Paris
김창열

2026.6.30 - 10.18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

파리의 화가 김창열

김창열(48회화)
6.30-10.18
제주도립미술관



Unseen Ground
최수앙
최수앙

6.24-9.15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엄미술관

Unseen Ground

최수앙(94조소)
6.24-9.15
엄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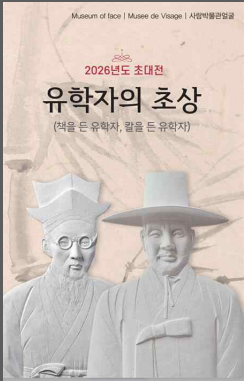
빛의 현존
LIGHT'S PRESENCE
HYUNJOO PARK 박현주

Opening Reception: 7.4 3pm
2026.6.20-9.6.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영은미술관

빛의 현존

박현주(87서양)
6.20-9.6
영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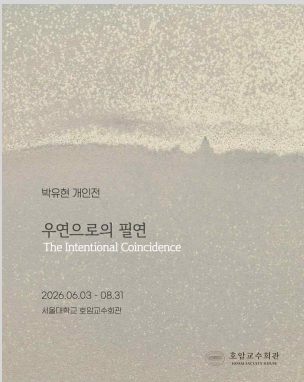
유학자의 초상
이성도
이성도

2026년도 초대전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사람박물관얼굴

유학자의 초상

이성도(74조소)
6.18-8.30
사람박물관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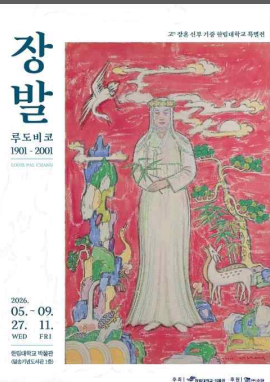
우연으로의 필연
The Intentional Coincidence
박유현

2026.06.03 - 08.31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우연으로의 필연

박유현(17서양)
6.3-8.3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장발
루도비코
장발

2026.05.27. - 09.11.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일송기념도서관

장발(루도비코)전

장발(교원)
5.27-9.11
일송기념도서관



지남 박소현 정년기념작품전
박소현
박소현

5.21-10.18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정준호갤러리

지남 박소현 정년기념작품전

박소현(80회화)
5.21-10.18
정준호갤러리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YOO YOUNG KUK
A MOUNTAIN WITHIN ME
PIONEER OF KOREAN ABSTRACTION

2026.05.19 - 10.25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유영국. 산은 내 안에 있다

유영국(교원)
5.19-10.25
서울시립미술관



강화, 강화를 날다
이강화
이강화

5.14-8.30
관람시간: 10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갤러리PaL_강화

강화, 강화를 날다

이강화(81회화)
5.14-8.30
갤러리PaL_강화